

세계 23개국 선발 대학생 리더 58명

동신대서 남도문화 배운다

24일까지 교육부 위탁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천연염색·김치만들기 산업체 방문 등 한국 알리기

광주U대회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자리에 세계 대학생 리더들이 찾아왔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위탁받은 '2015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가 최근 시작됐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세계 23개국에서 선발된 58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24일까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남도' 문화를 배우게 된다.

동신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한국문화와 남도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동신대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대만, 러시아, 르완다, 멕시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을 지니고 있지만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한국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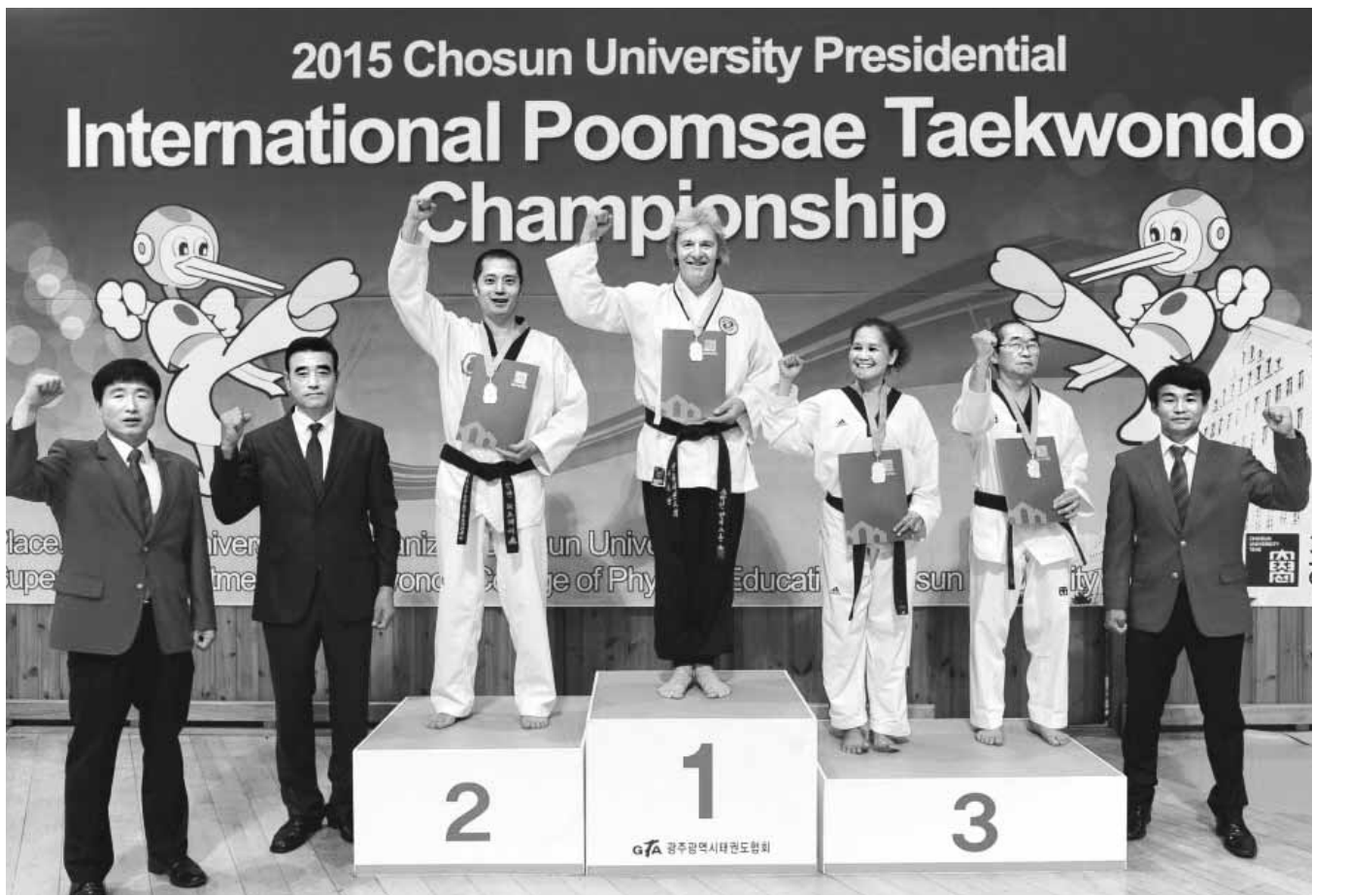
나주에서는 천연염색과 황포돛배체험, 나주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광주에서는 김치만들기, 시티투어, 야구경기관람을 할 예정이다.

동신대 뷰티미용학과에서 뷰티미용 체험, 보석귀금속학과에서 보석귀금속 제작 체험을 하며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여수우동도와 여수엑스포, 경주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서울 경복궁, 국회의사당, 동대문, 서울타워, 전쟁기념관, 명동 등 전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나주혁신도시내 한국전력공사와 광양제철소, 수원삼성전자 등 산업체 방문을 통해 동북아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게 된다.

특히 동신대 대학생과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 기간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들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세계 속에 한국과 남도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총장배 국제태권도 품새대회’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2015 조선대학교 총장배 국제태권도 품새대회’가 최근 개막, 오는 24일까지의 진행된다. 조선대는 총장배 국제태권도 품새대회를 창설해 외국인 수련생과 조선대 출신 동문 도장 수련생이 함께 참가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여대 치위생과 김한지·강한별 코엑스 종합학술대회서 은·동 수상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최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7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문상은 교수가 'CDHC를 통한 한국치과위생사 전문성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또한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교수진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 환자증례보고(김한지·강한별·최지원) 등 4편의 포스터를 발표했으며, 이중 김한지(4년)씨가 은상을 강한별(4년)씨가 동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인문학100년 장학생’ 3명 선발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학100년 장학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호남대는 3학년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글로벌 전문인'이라는 인재상에 적합한 사회교육 계열 3명을 해당 학교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이들은 향후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박사 과정까지 연계해 제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학 전담지도교수 멘토링을 통해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고 각종 연구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한국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KORMent) 참여를 촉진시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호남대는 인문학100년 장학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격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대학원 석·박사 진출을 유도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창조관광사업 공모 사업자로 조선대 태권도학과 최종 선정

조선대학교 체육대학(학장 송재훈) 태권도학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창조관광사업(벤처관광)은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태권도 문화상품과 창조관광' (책임교수 정홍용)은 조선대가 태권도라는 문화상품과 창조관광을 묶어 현재 중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태권도 인구를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 전략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문경영인’ 양성 요람

KOICA·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
‘제1기 KEPCO MBA’ 개강 등
맞춤 MBA 프로그램 잇따라 개설

수은 한국형 MBA 육성 계획에 의해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내 13개 경영전문대학원 중 유일한 지방 대학원이다.

2007년 3월 개원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전남대 MBA는 2010년 4월 지식경제부 주관 '기술경영(MOT) 대학원 개설·지원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MOT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주관 '지역공동체개발 지도자 양성과정'의 석사학위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KOICA MBA'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전력(KOICA)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과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KEPCO MBA'를 신설했다. 그동안 실무적 준비를 거쳐 오는 8월말 한국전력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1기 'KEPCO MBA' 과정 입학식을 앞두고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이 외에도 '글로벌' 및 '기술경영(MOT)' 과정의 MBA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MBA'는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되며, 주간 전일제 과정인 폴타임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과정인 파트타임으로 나눠 운영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과정인 'JNU MBA과정'은 기업의 CEO나 임원이 될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춘 리더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산업인력 교육콘텐츠 개발 박차

7개 학과 교수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가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동강대는 최근 교내 학술정보원에서 간호학과·안경광학과·보건행정학부·경찰경호과·노인복지과·사회복지과·사회체육과 등 7개 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진행됐다.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NCS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개발 기획위원인 권재길 창원문성대 교수는 NCS기반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 평가 및 질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동강대는 올 연말까지 학과별로 산업체 등과 함께 학교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해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변화와 체질개선에 따른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상너 NCS교육지원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NCS를 활용해 산업체와 현장 중심의 교육콘텐츠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펜션 · 찻집 · 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 연수원 등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현 감정가 - 28억
- 매매 - 22억원(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만호초등학교 건너편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현재, 뷔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7층중 7층 전체, 약 120평
- 현, 감정/시세 7억
- 대출 3억 6000만원 안고
- 매매 5억 5천만원
- 보 1억에 월 330만원 임대가능
- 60평씩 분할임대 가능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점문점/호프/PC방
제츠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주인직매 H. 010-3605-5000